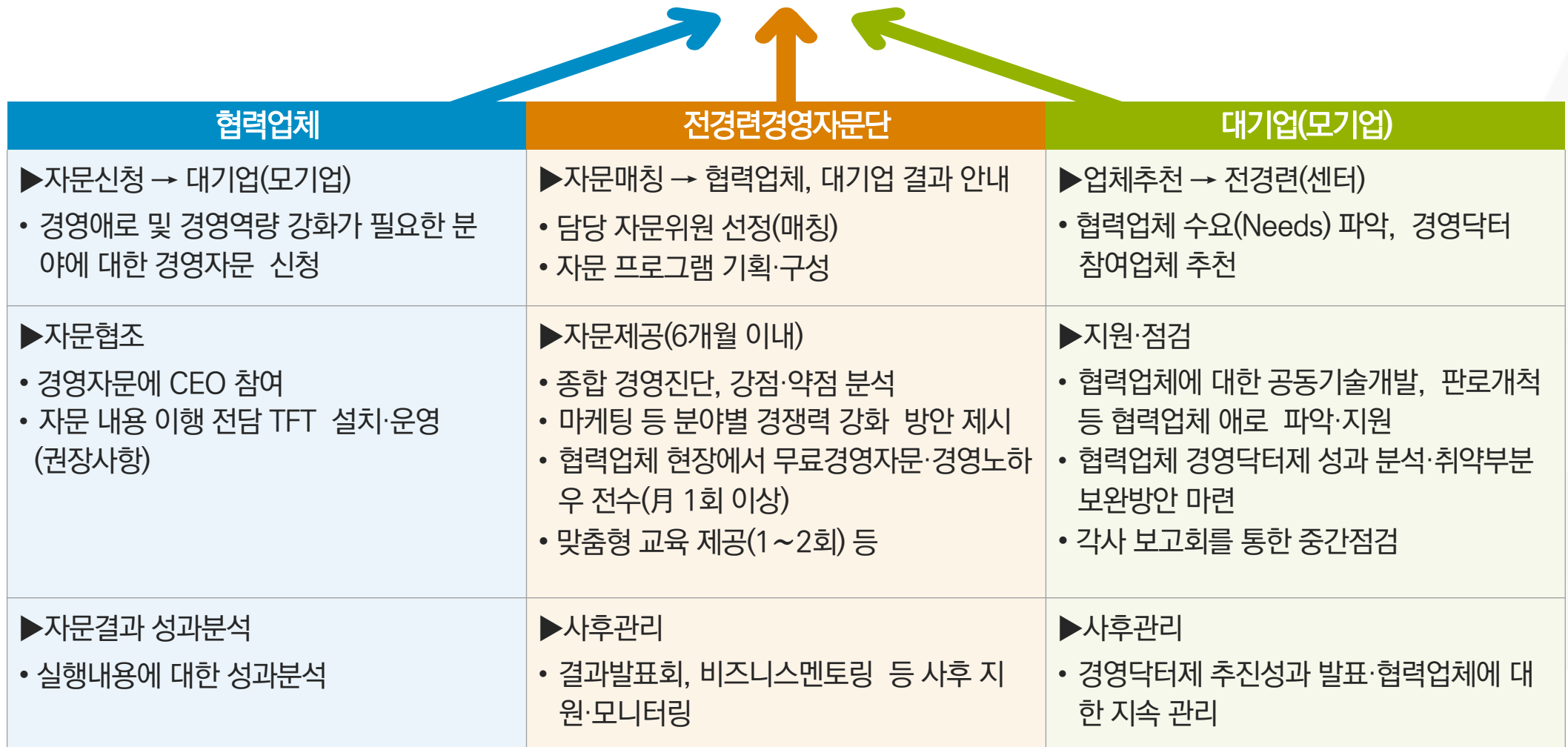

전경련 경영닥터제 소개



1. 경영닥터제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실천



2. 경영닥터제 성과

머니투데이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12면 산업

‘위기의 기업’ 재기 도왔다... 전경련 ‘경영닥터제’ 결실

반도체 검사장비 제작업체 티오에스(주)는 2017년 양산하던 장비에서 품질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매출이 63억원대까지 곤두박질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원하는 ‘경영닥터제’에 참여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2019년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지난해 172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외형 성장을 거뒀다. 재계에서는 티오에스(주)의 반전을 두고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힘을 모은 상생협력의 결실이 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경련은 13일 중소기업협력센터 우수자문기업으로 티오에스(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경기 오산 티오에스(주) 본사를 방문, 경영진과 임직원을 격려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티오에스(주)는 초고속 다채널 플라스마 감지장치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동종업계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2004년부터 주요 그룹 전직 CEO(최고경영자)와 임원 40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가운데)이 13일 경기 오산에 위치한 티오에스(주)를 찾아 김용규 대표(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산(경기)=오진영 기자 jahiyoun23@

반도체 검사장비 제작업체 ‘티오에스’ 우수자문기업 선정 경영난에 매출 63억대로 ‘곤두박질’... 지난해 172억 달성

그동안 1만1151개 기업에 2만3462건 개 대기업과 771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도 티오에스(주)의 관계자들은 전경련 경영닥터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본금 320만원으로 시작한 소규모 기업 티오에스(주)는 반도

체장비 R&D(연구·개발)에는 자신이 있지만 재무·회계 등 다른 분야는 강점이 없었다. 김용규 티오에스(주) 대표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였는데 전경련의 지원 덕에 회사의 약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허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3자가 협업해 좋은 성과를 거둔 티오에스(주)야말로 경영닥터제의 취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티오에스(주)의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3자협업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메스는 티오에스(주)가 경영위기를 겪던 시기에도 협력업체를 바꾸지 않고 공정 불량개선을 위한 교육·기술지도를 제공했다. 전경련은 티오에스(주)와 같은 우수사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경영닥터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지원도 확대한다. 서연동 전경련 경영자문단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

매일경제

전경련 경영자문 받은 오알켄, 매출 2.6배로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A18면 기업

인쇄회로기판 약품 만드는 중소기업
전경련 경영자문으로 위기 넘겨
LG이노텍·前 삼성 임원 등 도움
세계공략 위해 삼성전기와 ‘간부’
허창수 “ESG 핵심은 동반성장”

경기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오알켄은 반도체·첨단전자기기 인쇄회로기판(PCB) 공정 등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1991년 설립 후 연구개발에 매진했으나 국산화를 목전에 둔 2013년 대기업의 신뢰성 검증을 넘지 못하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출도 제자리걸음이었다.

고민 끝에 이재현 오알켄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문을 두드렸다. 대기업이나 대기업 출신 자문단이 각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경영닥터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반신반의하며 도움을 받기 시작한 뒤 여러 해가 지났다. 2012년 245억원이었던 매출은 올해 6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과 직원 수는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23일 우수자문기업으로 선정되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은 오알켄. 지난 8년간 이 회사에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묻는다. 첫 도움은 LG이노텍과 LG그룹 출신 남기재 전 태종아이에스 부회장이 왔다. 남 전 부회장 주선으로 LG이노텍은 정주와 오산공장 생산라인과 부자재를 제공했고, 제품 신뢰성 검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결국 제품 검증을 거쳐 국산화 약품 기술이 탄생했다.

승승장구하던 오알켄은 2018년 매출 증가율이 꺾였다. 생산물량이 늘어난 것까지 좋았는데, 이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할 줄 몰랐다. 다시 전경련을 찾았다. 이번엔 김영덕 전 삼성전기 상무와 정학재 전 삼성코닝 상무가 도움으로 나섰다. 둘의 자문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기에서 바코



23일 경기 안산에 있는 오알켄 본사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 다섯째)과 이재현 오알켄 대표(왼쪽 넷째)를 비롯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리고 오알켄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이 있었는지 묻는다.

첫 도움은 LG이노텍과 LG그룹 출신 남기재 전 태종아이에스 부회장이 왔다. 남 전 부회장 주선으로 LG이노텍은 정주와 오산공장 생산라인과 부자재를 제공했고, 제품 신뢰성 검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결국 제품 검증을 거쳐 국산화 약품 기술이 탄생했다.

승승장구하던 오알켄은 2018년 매출 증가율이 꺾였다. 생산물량이 늘어난 것까지 좋았는데, 이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할 줄 몰랐다.

다시 전경련을 찾았다. 이번엔 김영덕 전 삼성전기 상무와 정학재 전 삼성코닝 상무가 도움으로 나섰다. 둘의 자문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기에서 바코

드·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했고, 전자적 자원관리(ERP)도 도입했다. 설비가 동물이 100%로 올라갔고, 매출도 성장세로 돌아섰다.

오알켄은 작년보다 14.5%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도 전경련을 찾았다. 위기가 아님에도 SOS를 전 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2019년 기준 102억원이었던 수출이 올해는 133억원, 2025년이면 23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그러려면 환경(環境)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파트너는 삼성전기와 조연구 전 삼성캐피탈 상무다. 오알켄은 내년 중국 저장성에 공장을 신축하고 연구개발(R&D)센터를 만들 계획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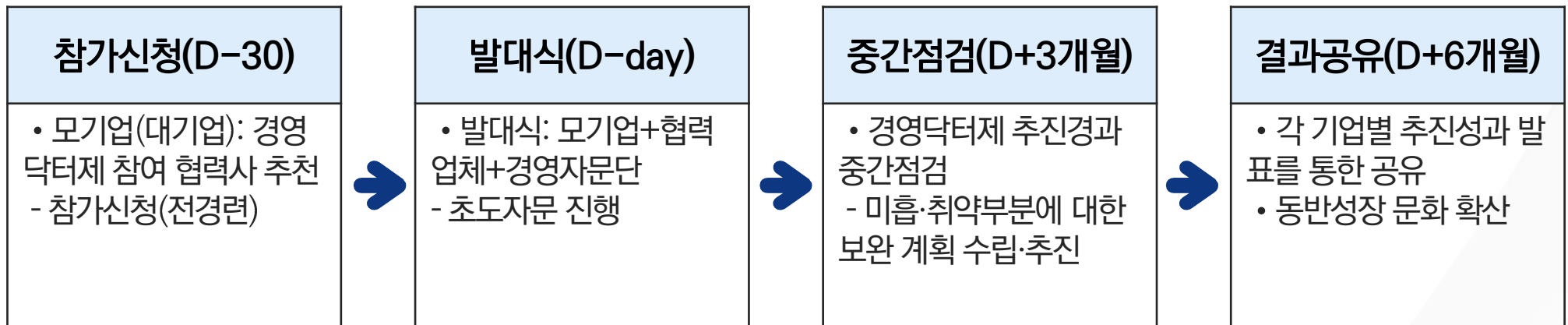
데 삼성전기와 조 연 상무는 해외법인 관리를 위한 국내외 통합 프로세스 정착, 한 리스크 내부 규정 수립·관리를 도움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경련 경영닥터제를 선택한 건 회사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안산의 오알켄 본사를 직접 찾은 허 회장은 “아무리 성장이 좋아도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오알켄의 역량도 대단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동반성장은 ESG(환경·책임·부패경영)의 핵심으로 우리 기업이 가야 할 길”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3. 신청 및 진행 절차

전경련 공문발송(대기업) 및 홈페이지 공지 → 대기업은 **협력업체 추천**
→ 전경련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업 확정**



비용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무료** (다만, 지방출장 시 해당 기업에서 교통편(현지 이동차량)등 편의 제공 권장)

문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이민진 책임연구원(02-3153-7950, mjlee@fkilsc.or.kr)

4. 전경련경영자문단 소개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비즈니스 경험을 중소기업·창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01 경영 노하우 전수 및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이 재능기부

02 현직에서 활동중인 특허, 세무, 관세, 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의 법무 상담 무료 제공

-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 전직 CEO 및 임원 40명으로 출범('04.7)
- '04년~'22년 11,561개 기업에 25,016건 자문

자문위원(206名)				전문위원(34名)	
출신그룹별		분야별			
삼 성	54	경영전략(사업계획, 신사업, 벤처·창업 등)	43	법률	10
현대·기아차	18	경영관리(인사, 자금, 정보화e비즈니스 등)	33	특허	8
LG	17	기술사업화(기술개발·도입, 시제품 생산 등)	30	회계·세무	8
SK	24	공장혁신(생산성 향상, 품질, 공정혁신 등)	37	관세	4
한화·포스코	7	마케팅전략(판로개척, 차별화, 물류 등)	32	인사·노무	3
기타	86	글로벌전략(해외정보, 무역금융, FTA 등)	31	행정	1

감사합니다

T H A N K Y O U